

【우리 소설, 우리말】

소설을 더욱 맛나게 하는 언어

— 김주영의 <객주>에 나타난 속담·상말을 중심으로 —

민충환

부천대학 교수

1

최근 김주영의 <객주>가 청소년에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어휘를 풀이한 부록을 곁들여 새롭게 출간되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살아 숨쉬던 민중들의 어휘가 오늘날 낯선 세계의 언어로 인식되는 현실에서 이러한 기획은 바람직한 작업으로 생각된다.

기실 김주영의 <객주>는 조선 후기 유랑하는 보부상의 삶의 궤적을 통해 당시 시전 상인들의 삶과 정치적 경제적 구조를 민중적 시각으로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 대작이다. 작가는 시골 장터나 도회의 저자 거리를 탁월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특히 장사꾼들의 살아있는 언어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다. 그들의 걸쭉한 입담 가운데 자연스럽게 등장하고 있는 옛말과 토속어, 속담과 관용어 등은 지금의 독자들에게는 당혹스럽게 다가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언어는 민초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데 매우 효과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2

<객주>에는 속담과 상말,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어려운 어휘가 다수 등장한다. 이러한 어휘들을 간단히 살펴보자.

- (1) **셋바람** 사이를 굶던 빗방울이 몇자 금방 교교한 달빛이 계곡의 **새밭**으로 쏟아져 내렸다.
- (2) 계곡을 끼고 새재[鳥嶺]로 기어오르는 **에움길**을 **봉산 수숫대**같이 키가 멀쩡한 **불상 놈** 하나가 **봉발**(蓬髮)을 하고 **열고나개** 기어오르고 있었다.
- (3) 보아하니 행색의 초라함은 **양주골 홀아비** 꼴이었지만 행전(行纏) 하나는 단단히 쳐져 있었고, 어디서 잡았는지 어깨엔 토끼 한 마리가 **밀치끈**에 꿰뚫어 매달려 있었다.
- (4) 사내는 부지런히 **길을 줄이다**가 문득 개천으로 내려가는 **자드락** 길로 바꾸어 잡았다.
- (5) 개천에는 낡은 **복찻다리**가 가로놓여 있었고, 복찻다리 건너 기슭에는 박달나무 숲이 무성했다.
- (6) **북두갈고리** 같은 손을 **동저고리** 속으로 집어넣더니 **수리치**를 꺼내 **부시를 치기** 시작했다.

예문 (1)의 ‘셋바람’은 ‘동풍’, 즉 봄바람을 뜻하며, ‘새밭’은 ‘역새가 우거진 곳’을 가리킨다.

예문 (2)의 ‘에웁길’은 ‘굽은 길’, ‘에워서 돌아가는 길’을 뜻하는 순우리말 표현이다. ‘봉산 수숫대같이’는 ‘키가 멀쭉하게 큰 사람’이라는 뜻의 속담이고, ‘열고나게’는 ‘몹시 급하게 서두르는’이라는 의미를 지닌 고유어다.

예문 (3)의 ‘양주골 홀아비 꼴’은 ‘행색이 초라하고 고달파 보이는 사람’을 일컬으며, ‘밀치끈’은 ‘밀치에 걸어 안장이나 길마에 잡아매는 끈’으로, ‘밀치’는 ‘마소의 꼬리 밑에 거는 나무 막대기’를 말한다.

예문 (4)의 ‘길을 줄이다가’는 ‘길을 조이다’ 즉, ‘목적지에 빨리 가려고 걸음을 서둘러 걷다가’라는 뜻이고, ‘자드락길’은 ‘산기슭 비탈에 있는 좁은 길’이라는 순우리말 단어다.

예문 (5)의 ‘복찻다리’는 ‘큰길을 가로지른 작은 개천에 놓은 다리’를 말한다.

예문 (6)의 ‘복두갈고리 같은 손’은 ‘막일을 많이 하여 험상궂고 크게 생긴 손’을 이르는 말이고, ‘동저고리’는 ‘동옷’ 즉, ‘남자가 입는 저고리’를, ‘수리치’는 ‘영거식과에 딸린 여러해살이풀’로, 말려서 부식깃으로 쓴다. ‘부시를 치기’는 ‘부싷돌에 부식깃을 놓고 부시로 쳐서 불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짧은 인용문 안에 이처럼 많은 속담과 토속어, 어려운 어휘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이 인물의 행동이나 대화, 배경 묘사 등에 매우 적절하게 활용되면서, <객주>가 드러내고자 하는 민초들의 생활상을 효과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이와 같은 표현들은 당대 사회상을 완전하게 재현하기 어려운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하는 데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다 하겠다.

이 글은 <객주>에 나타난 중요 어휘조사 내용 가운데 속담과 상말을 중심으로 ‘ㄱ’ 부분에 한정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난뱅이 구들장에 물난리다

가난한 집은 항상 지붕이 새기 때문에 비만 오면 방안에서 물소동이 난다는 말. ‘무사타첩’은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끝남’을 뜻함.

* **가난뱅이 구들장에 물난리**가 겹치더라도 그 꼴을 가위 눈뜨고는
못 볼 지경이었지만 자신이 **무사타첩**하자니 어쩔 도리가 없었다.

가을부채 꼴

요긴하게 쓰일 때가 지난 물건을 이르는 말. ‘요족’은 ‘살림이 넉넉함’을
이르는 말이고, ‘궂녀’는 ‘그 여자’라는 뜻의 3인칭 대명사이다.

* 만큼 태수인 신석주의 소실이 되어 걸으로는 **요족**을 누린다 한들,
궂녀의 심기는 **가을부채처럼** 쓸쓸할 수밖에 없었다.

가죽화

여자의 음부를 속되게 이르는 말.

* “쌈지에 찡긴 푼전이나 있으면 어디 오랜만에 **가죽화**에 대고 때
한번 걸판지게 벗겨보세나.”

갓 마흔에 첫 버전

마흔 살이 되어서 겨우 처음으로 버전을 신는다는 뜻으로, 어떤 좋은
일이 뒤늦게야 겨우 차려진 경우를 이르는 말. ‘자리끼’는 ‘자다가 마시
기 위해 머리맡에 두는 물’.

* …소레는 **갓 마흔에 첫 버전** 얻은 셈치고 묵묵히 김학준의 음식
수발이며 배갓머리에 **자리끼**까지 떠다놓게 되었다.

개구리 낮쪽에 물 붓기(끼엇기)

어떤 자극을 주어도 그 자극이 조금도 먹혀들지 아니하거나 어떤 처사
를 당하여도 태연함을 이르는 말. ‘우두망찰’은 ‘갑자기 당한 일에 정신
이 얼떨떨하여 어찌할 바를 모름’을 이름.

* **개구리 낮쪽에 물 퍼붓기**로 눈 한 번 깜빡 앓고 대거리를 하고 있
는 궂녀의 숫기에 기가 질린 맹구범이 **우두망찰**인데 바깥을 내다
보고 앉았던 변승엽이 냉큼 끼여들었다.

개 귀의 비루를 털어 먹어라

하는 것이 다랍고 치사스러운 사람을 두고 이르는 말. ‘비루’는 개 따위의 짐승에 생기는 피부병.

* **개 귀의 비루를 털어 먹는** 게 낫지 끼니 때워 나가기도 지난 일 빈궁한 가계에 너무나 과분한 대접인지라.

개 발에 대갈

체격에 맞지 아니하여 어울리지 않음을 이르는 말. ‘대갈’은 말굽에 편자를 박을 때 쓰는 징.

외욕질

속이 좋지 않아 욕지기를 하는 짓.

* “적수공권 뿐이겠는가. 저 길이 무주공산이 아닌가.”

“예끼 이놈, **개 발에 대갈**이다. 문자 쓰지 마라. 외욕질 난다.”

건넛숫막 꾸짖기

건넛숫막 꾸짖기. 남을 직접 욕하거나 꾸짖기가 거북할 때 다른 사람을 빗대어 간접적으로 꾸짖어서 당사자에게 알게 한다는 말. ‘건넛숫막’은 건넌편에 있는 술집.

* 우리가 여기 앉아서 아무리 나라 걱정을 해보았자 강 **건너 숫막 꾸짖기**요. 장차의 대책이나 마련하는 것이 우리가 할 노릇입니다.

경기 밥 먹고 청홍도 구실한다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남의 일을 하는 싱거운 짓을 이르는 말. ‘청홍도’는 충청도. ‘두호를 받다’는 ‘남의 두둔과 보호를 받음’을, ‘복세를 놓다’는 ‘여러 사람이 부산하게 법석이다’는 뜻.

* “**경기 밥 먹고 청홍도 구실**도 분수 나름이다. 이놈아, 선치 목민에 여념이 없는 수령의 **두호**를 받으면서 집간이나 의지하고 지내

는 처지로...적굴놈과 한통속이 되어 **복새를 놓느냐?**"

결을 주다

여자가 몸을 허락하다.

* “입이라도 한 번 맞춰야지...”

“그만 주무시오.”

종내 **결을 주지 않으려는** 월이와 그래도 어찌 달래어서 정분을
트려는 최가가 옥신각신하는 동안 닭은 설새없이 해를 쳤다.

고수관의 판전이라

얼굴색도 변하지 아니하고 앞서 말한 바를 시치미 떼며 천연스럽게 바
꾸어 판전을 부린다는 말. ‘고수관(高壽寬)’은 조선조 순조·철종 때의
판소리 명창.

* “네 놈이 이참에 와서 **고수관의 판전 부리듯 한다**마는 그놈들과
귀엣말을 나눈 게 어디 한두 번이었더냐?”

곰뱅이 트다

남사당패가 마을에 들어와서 놀이를 벌여도 좋다는 허락을 받다.

* “양경에 독이 오를 대로 오른 놈들이 약차하면 지나가는 절간의
산중인들 상관하기 마다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첩첩산골에 여사
당들이 **곰뱅이를 트려고** 들이닥치지도 않을 거구요.”

구들막 농사

자식은 방구들 위에서 만든다는 우스갯소리에서 유래된 말로, 남녀의
성행위를 이르는 말.

* “왜 옷을 자꾸 벗기시려요?”

“이런 망칙한 사람을 보았나. 그럼 **방구들 농사**를 짓자는 데 옷을
벗지 않고 입고 하잔 것인가.”

국상에 죽산마 지키듯

무엇인지도 모르고 시키는 대로 멀거니 서서 지켜보고 있음을 이르는 말. ‘죽산마(竹散馬)’는 임금이나 왕비의 장례에 쓰던 제구.

* “...기왕지사 내친 김이라면 나중엔 기왓장 풀림을 당한다 하더라도 한꺼번에 놀아야 할거 아녀? **국상에 죽산마 지키듯** 이렇게 앉아만 있을터?”

귀가 도자전 마룻구멍이라

배운 것은 없으나 귀로 들어서 아는 것이 많다는 것을 농으로 이르는 말. ‘도자전(刀子塵)’은 작은 칼과 패물을 파는 가게.

* “...내 **귀가 도자전 마룻구멍이라** 명색이 배운 건 없었어도 아는 건 많다.”

귀양이 홀벽에 가렸다

귀양 갈곳이 먼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홀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는 뜻으로, 재앙이나 화는 늘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으니 모든 일에 늘 조심하라는 말. ‘홀벽’은 한쪽만 흠을 바른 얇은 벽.

* ...이제 그 **목숨이 홀벽에 가리었고** 또한 제 어미에게까지 화근이 미칠세라 사내들의 요구를 들어 주기로 속내를 고쳐먹고 만 것이었다.

금 잘 치는 서순동이라

서순동이라는 사람이 물가를 잘 평정했다는 데서, 물건의 값을 잘 매기는 사람을 이르는 말. ‘파이해버렸다’는 ‘파의(罷意)’에서 온 말로, ‘하고자 마음먹었던 뜻을 버렸다’는 의미임.

* 거간이란 것들이 원래 **금 잘 치는 서순동들이라**, 지물 다섯 바리에 5백냥짜리를 1천 6백 냥까지 놓아가며 흥정을 트려 하였으나 맹구범의 사주를 받고 있는 위인들이란 것을 알고 있는 두 사람은

일언지하에 흥정을 **파이해버렸다**.

기름 엿지르고 깨를 줍는다

큰 이익을 잃어버리고 대신 보잘것없는 작은 이익을 구함을 이르는 말.

* “내가 액운을 당하여 이 꼴이 되었다만 나를 징치하려 드는 건 **기름 엿지르고 깨 줍는 격**이다. 나를 야박하게 다루었다간 너의 일가에 살아남을 계집이 없게 된다.”

이와 같은 다양한 어휘들이 시전상인과 사상도고 그리고 보부상들의 활동상을 흥미진진하게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3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객주>에는 속담과 상말이 다수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어휘는 등장 인물의 성격을 리얼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서술자의 직접적인 설명 없이 독자는 그 인물이 구사하는 어휘와 말투를 통해 살아 있는 인물처럼 느낀다. 즉, 속담과 상말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자세하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보부상 집단이 살아가는 방식으로서 끝없는 유랑을 그린 <객주>는 민중에 대한 작가의 깊은 애정과 피지배자인 백성들 쪽에서 바라본 새로운 역사 인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소설적 재미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19세기 말의 세태 풍속을 사실적으로 재현하고 있다. 이러한 데에 속담과 상말이 일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생활어를 발굴하여 질감있게 구사함으로써 소설의 리얼리티를 높이는 한편 조선 후기 상업 자본의 형성이라는 역사적인 흐름까지도 담고 있다. <객주>에서 등장인물들이 구사하는 질박한 언어가 그 몫을 오롯이 감당하고 있다.